



고1
공통국어1
해냄

2027 고1 공통국어1 해냄 | 2(2) 눈길 내신형 기출 문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직전 보강 유형

「눈길」에서는 작품의 특징과 기호로 각 구절을 지정하고 해당 구절의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 소재의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가 주로 출제되었습니다. 서술상 특징과 작품의 줄거리, 맥락, 인물의 태도 및 정서를 파악하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내일 아침 올라가야겠어요.”

점심상을 물러나 앉으면서 나는 마침내 입속에서 별러 오던 소리를 내뱉어 버렸다.

㉠노인과 아내가 동시에 밥숟가락을 멈추며 멀거니 내 얼굴을 건너다본다.

“내일 아침 올라가다니. 이참에도 또 그렇게 쉽게?”

노인은 결국 숟가락을 상 위로 내려놓으며 믿기지 않는다는 듯 되묻고 있었다.

나는 이제 내친걸음이었다. 어차피 일이 그렇게 될 바엔 말이 나온 김에 매듭을 분명히 지어 두지 않으면 안 되었다.

“예, 내일 아침에 올라가겠어요. 방학을 얻어 온 학생 팔자도 아닌데, 남들 일할 때 저라고 이렇게 한가할 수가 있나요. 급하게 맡아 놓은 일도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그래도 한 며칠 쉬어 가지 않고……. 난 해필 이런 더운 때를 골라 왔길래 이참에는 며칠 좀 쉬어 갈 줄 알았더니…….”

“제가 무슨 더운 때 추운 때를 가려 살 여유나 있습니까?”

“그래도 그 먼길을 이렇게 단걸음에 되돌아가야 하겠냐. 넌 항상 한동자로만 왔다가 선걸음에 새벽 길을 나서곤 하더라마는…… 이번에는 너 혼자도 아니고…… 하룻밤이나 차분히 좀 쉬어 가도록 하거라.”

(나) 한동안 입을 다물고 앉아 있던 노인이 마침내

체념을 한 듯 다시 입을 열어 왔다.

“항상 그렇게 바쁜 사람인 줄은 안다마는, 에미라고 이렇게 먼 길을 찾아와도 편한 잠자리 하나 못 마련해 주는 내 맘이 아쉬워 그랬던 것 같구나.”

말을 끝내고 무연스런 표정으로 장죽 끝에 풍년초를 꺾꺾 눌러 담기 시작한다.

너무도 간단한 체념이었다. 담배통에 풍년초를 눌러 담고 있는 그 노인의 얼굴에는 아내에게서와 같은 어떤 원망기 같은 것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당신 곁을 조금이라도 떠나고 싶어 하는 그 매정스런 아들에 대한 아쉬움 같은 것도 엿볼 수가 없었다. 성냥불도 불이려 하지 않고 언제까지나 그 풍년초 담배만 꺾꺾 눌러 채우고 앉아 있는 노인의 눈길은 차라리 무표정에 가까운 것이었다.

나는 그 너무도 간단한 노인의 체념에 오히려 불쑥 짜증이 치솟았다.

나는 마침내 자리를 일어섰다. 그리고는 그 노인의 무표정에 밀려나기라도 하듯 방문을 나왔다.

㉡장지문 밖 마당가에 작은 치자나무 한 그루가 한낮의 땀별을 건디고서 있었다.

(다) 고등학교 1학년 때 형의 주벽으로 가계가 파산을 겪은 뒤부터, 그리고 마침내 그 형이 세 조카와 이와 아이들의 흠어머니까지 포함한 장남의 모든 책임을 내게 떠맡기고 세상을 떠난 뒤부터 일은 줄곧 그렇게 되어 온 셈이었다.

고등학교와 대학교와 군영 3년을 치러 내는 동안 ㉢노인은 내게 아무것도 날아 기르는 사람의 몫을 못했고, 나는 또 나대로 그 고등학교와 대학과 군영의 의무를 치르고 나와서도 자식 놈의 도리는 엄두를 못 냈다. 노인이 내게 베푼 바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럴 처지가 못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나대로 형이 내게 떠맡기고 간 장남의 책임을 감당하기를 사양치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노인과 나는 결국 그런 식으로 서로 주고받을 것이 없는 처지였다. 노인은 누구보다 그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대해선 소망도 원망도

있을 수가 없었다.

그런 노인이었다. 한데 이번에는 웬일인지 노인의 눈치가 이상했다. 글썄 그 가치나 수술을 한사코 사양을 해 온 노인이, 나이 여든에서 겨우 두 해가 모자란 늙그막에 와서야 새삼스레 다시 딴 세상 희망이 생긴 것일까.

(라) 오늘 아침 아내는 마당가로 세숫물을 떠 들고 나왔다가 낮은 소리로 추궁을 해 왔다. 그때 나는 아내에게 그저 쓸데없는 참견 말라는 듯 눈매를 잔뜩 짙어 떠 보였었다. 하니까 아내는 그러는 나를 차라리 경멸조로 나무랐다.

“당신은 참 엉뚱한 데서 독해요. 늙은 노인네가 가엾지도 않으세요. 말씀이라도 좀 더 따뜻하게 위로해 드릴 수도 있었을 텐데 말예요.”

아내도 분명 노인의 말뜻을 알아듣고 있었다. 그리고 나보다도 더 노인의 일을 걱정하고 있었다. 노인에게 대한 내 속마음도 속속들이 모두 읽고 있는 게 당연했다. ㉠내일 아침으로 서둘러 서울로 되돌아가겠노라는 나의 결정에 아내가 은근히 분개하고 나선 것도 그런 사연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한다고 그들 무슨 뾰족한 수가 있을 수가 있는가.

어쨌든 노인이 이제라도 그 집을 새로 짓고 싶어하고 있는 건 분명했다. 아무래도 알 수가 없는 일이었다. 아닌 게 아니라 나이를 먹으면 노인들은 모두 어린애가 되어 가는 것일까. 노인이 정말로 내게 빛이 없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만 것인가. 노인의 말처럼 그건 일테면 노망기가 분명했다. 그런 염치도 못 가릴 정도로 노인은 그렇게 늙어 버린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굳이 노인의 그런 노망기를 원망할 필요도 없었다. 문제는 서로 간의 빛의 문제였다. 노인에게 대해 빛이 없다는 사실만이 내게는 중요했다. ㉡염치가 없어져서건 노망을 해서건 노인에게 대해 내가 갚아야 할 빛만 없으면 그만이었다.

- 이청준, 「눈길」

1.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회상의 방식을 사용하여 현재 상황의 원인을 드러내고 있다.

ㄴ. 극적인 반전 장치를 활용하여 인물의 성격이 입체적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보여 준다.

ㄷ. 행동에 대한 묘사적 진술을 통해 대상에 대한 인물의 심리나 태도를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ㄹ. 공간의 빈번한 이동과 장면의 빠른 전환을 통해 사건 전개에 박진감과 속도감을 부여한다.

ㅁ. 인물 간의 대화를 중심으로 서사를 이끌어 나가며 서술자의 주관적 개입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ㅁ ⑤ ㄴ, ㄹ, ㅁ

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동일한 동작을 멈추는 인물들의 반응을 통해 ‘나’의 말이 예상 밖의 일이었음을 드러낸다.
- ② ㉡: 뜨거운 별을 견디는 치자나무는 현재 ‘나’가 느끼고 있는 심리적 압박감과 곤혹스러움을 투영하는 소재이다.
- ③ ㉢: 어머니로부터 물질적 부양을 받지 못했음을 언급하며, 부모의 도리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여 판단하는 ‘나’의 관점을 보여 준다.
- ④ ㉣: 남편의 결정에 대해 아내가 방관자적인 자세를 취하며, 고부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상황을 회피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 ⑤ ㉤: 어머니에 대해 갚아야 할 정서적 부채가 없음을 강조하며, 논리적 합리성만을 내세우는 ‘나’의 냉정한 면모를 부각한다.

[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그날 밤 노인은 옛날과 똑같이 저녁을 지어 내왔고, 그날 밤을 거기서 함께 지냈다. 그리고 이튿날 새벽 일찍 K시로 나를 다시 되돌려 보냈다. 나중에야 안 일이지만 노인은 그렇게 나에게 저녁밥 한 끼를 지어 먹이고 마지막 밤을 지내게 해 주고 싶어, 새 주인의 양해를 얻어 그렇게 혼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했다. 언젠가 내가 다녀갈 때까지는 하룻밤만이라도 내게 옛집의 모습과 옛날 같은 분위기 속에 맘 편히 눈을 붙이고 가게 해 주고 싶어서였을 터이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문간을 들어설 때부터 썰렁한 집안 분위기가 이사를 나간 빈집이 분명했건만.

한데도 노인은 그때까지 매일같이 그 빈집을 드나들며 먼지를 털고 걸레질을 해 온 것이었다. 그리고 그때 노인은 아직 집을 지켜 온 흔적으로 안방 한쪽에 이불 한 채와 옷궤 하나를 예대로 그냥 남겨 두고 있었다. 이튿날 새벽 K시로 다시 길을 나설 때서야 비로소 집이 팔린 사실을 분명히 해 온 노인의 심정으로는 그날 밤 그 ㉠옷궤 한 가지로나마 옛집의 분위기를 되살려 내 괴로운 잠자리를 위로하고 싶었음에 분명한 물건이었다.

그런 내력이 숨겨져 온 옷궤였다. 떠돌이 살림에 다른 가재도구가 없어서도 그랬겠지만, 이 20년 가까이를 노인이 한사코 함께 간직해 온 옷궤였다. 그만큼 또 나를 언제나 불편스럽게 만들어 온 물건이었다. 노인에게 빛이 없음을 몇 번씩 스스로 다짐하고 지내다가도 그 옷궤만 보면 무슨 액면가 없는 빛문서를 만난 듯 기분이 꺼림칙스러워지곤 하던 물건이었다.

(나) 그날 밤—아니 그날 새벽—아내에겐 한 번도 들려준 일이 없는 그날 새벽의 서글픈 동행을, 나 자신도 한사코 기억의 피안으로 사라져 주기를 바라오던 그 새벽의 눈길의 기억을 노인은 이제 받아 낼 길 없는 ㉡목은 빛 문서를 들추듯 허무한 목소리로 되씹고 있었다.

“날은 아직 어둡고 산길은 험하고, 미끄러지고 넘어지면서도 차부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시간을 대어갈 수가 있었구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나의 머릿속에도 마침내 그날의 정경이 손에 닿을 듯 역력히 떠올랐다.

(중략)

나는 갑자기 다시 노인의 이야기가 두려워졌다. 자리를 차고 일어나 다음 이야기를 가로막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이미 그럴 수가 없었다. 사지가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온몸이 마치 물먹은 솜처럼 무겁게 가라앉고 있었다. 몸을 어떻게 움직여 볼 수가 없었다. 형언하기 어려운 어떤 달콤한 슬픔, 달콤한 피곤기 같은 것이 나를 아늑히 감싸 오고 있었다.

(다) “길을 혼자 돌아가시던 그때 일을 말씀하세요?”

“눈길을 혼자 돌아가다 보니 그 길엔 아직도 우리들 말고는 아무도 지나간 사람이 없지 않았잖나. 눈발이 그친 그 신작로 눈 위에 저하고 나하고 ㉢돌이 걸어 온 발자국만 나란히 이어져 있구나.”

“그래서 어머니는 그 발자국 때문에 아들 생각이 더 간절하셨겠네요.”

“간절하다뿐이었잖나. 신작로를 지나고 산길을 들어서도 굵이굵이 돌아온 그 ㉣몹쓸 발자국들에 아직도 도란도란 저 아그 목소리나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는 듯만 싶었제. ㉤산비둘기만 푸르르 날아올라도 저 아그 녀이 새가 되어 다시 되돌아오는 듯 놀라지고, 나무들이 눈을 쓰고 서 있는 것만 보아도 뒤에서 금세 저 아그 모습이 뛰어나올 것만 싶었지야. 하다 보니 나는 굵이굵이 그 외지기만 한 산길을 저 아그 발자국만 따라 밟고 왔더니라. 내 자석아, 내 자석아, 너하고 돌이 온 길을 이제는 이 몹쓸 늙은 것 혼자서 너를 보내고 돌아가고 있구나!”

“어머님 그때 우시지 않았어요?”

“울기만 했잖나. 오목오목 디더 논 저 아그 발자국마다 한도 없는 눈물을 뿌리며 돌아왔제. 내 자석아, 내 자석아, 부디 몸이나 성히 지내거라. 부디부디 너라도 좋은 운 타서 복 받고 살거라……. 눈앞이 가리도록 눈물을 떨구면서 눈물로 저 아그 앞길만 밟고 왔제…….”

(라) 나는 아직도 눈을 뜰 수가 없었다. ㉥불빛 아래 눈을 뜨고 일어날 수가 없었다. 사지가 마비된 듯 가라앉아 있는 때문만이 아니었다. 졸음기가 아직 아쉬워서도 아니었다. 눈꺼풀 밑으로 뜨겁게 차오르는 것을 아내와 노인 앞에 보일 수가 없었다. 그것이 너무도 부끄러웠기 때문이다. 아내는 이번에도 그러는 나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았다.

“여보, 이젠 좀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서 당신도 말을 좀 해 보세요.”

그녀가 느닷없이 나를 세차게 흔들며 깨웠다. 그녀의 음성은 이제 거의 울부짖음에 가까웠다. 그래도 나는 일어날 수가 없었다. 뜨거운 것을 숨기기 위해 눈꺼풀을 꼭꼭 눌러 참으며 내쳐 잠이 든 척 버틸 수밖에 없었다.

음성이 아직 흐트러지지 않고 있는 건 오히려 노인뿐이었다.

“가만두거라. 아침 길 나서기도 피곤할 것인데 곤하게 자고 있는 사람 뭣 하러 그러냐.”

노인은 일단 아내의 행동을 말려 두고 나서 아직도 그 옛얘기를 하는 듯한 아득하고 차분한 음성으로 당신의 남은 이야기를 끝맺어 가고 있었다.

“그런디 이것만은 네가 좀 잘못 안 것 같구나. 그때 내가 뒷산 잣등에서 동네를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던 일 말이다. 그건 내가 갈 데가 없어 그랬던 건 아니란다. 산 사람 목숨인데 설마 그때라고 누구네 문간방 한 칸이라도 산 몸뚱이 깃들일 데 마련이 안 됐겠냐. 갈 데가 없어서가 아니라 아침 햇살이 활짝 퍼져 들어 있는데, 눈에 덮인 그 우리 집 지붕 까지도 햇살 때문에 볼 수가 없더구나. 더구나 동네에선 아침 짓는 연기가 한창인데 그렇게 시린 눈을 해 갖고는 그 ㉔햇살이 부끄러워 차마 어떻게 동네 골목을 들어설 수가 있더냐. 그놈의 말간 햇살이 부끄러워져서 그럴 엄두가 안 생겨나더구나. 시린 눈이라도 좀 가라앉히자고 그래 그러고 앉아 있었더니라…….”

— 이청준, 「눈길」

3. <보기>를 참고하여 ㉔와 ㉕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작품의 결말 부분에서 어머니와 아들의 기억 속에 교차되며 회상되고 있는 ‘눈길’은 어머니와 ‘나’의 이별이 극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공간이다. 작품에서 ‘눈길’은 두 번 등장하는데, 어머니와 ‘나’가 차를 타러 가기 위해 헤치고 나가는 눈길과 ‘나’를 떠나보낸 어머니가 홀로 되 돌아오는 눈길이다.

- ① ㉔는 모자가 함께 걸으며 공유했던 마지막 동행의 흔적을 상징한다.
- ② ㉔는 어머니에게 아들 생각을 유발하는 소재이다.
- ③ ㉕는 자식을 홀로 서울로 떠나보내야 했던 상황에 대한 어머니의 원망을 내포한다.
- ④ ㉕는 아들을 배웅하고 돌아오는 길에 느꼈을 어머니의 극심한 고독과 슬픔을 투영한다.
- ⑤ ㉕는 어머니의 내면에서 아들의 온기를 느낄 수 있게 하는 매개적 역할을 한다.

4. ㉑~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 과거의 비극적 사건과 어머니의 고단한 삶이 투영된 사물로, ‘나’에게는 외면하고 싶은 심리적 부담감을 준다.
- ② ㉒: 자식에게 베푼 사랑을 보답받으려 하지 않는 어머니의 태도와, 이를 회피하려는 ‘나’의 죄책감을 비유적으로 표현한다.
- ③ ㉓: 아들의 존재를 환기하는 자연물로, 아들을 떠나보낸 직후 어머니가 느꼈던 그리움과 간절함을 드러낸다.
- ④ ㉔: 어머니의 진심을 깨닫고 난 후 밀려오는 회한과 부끄러움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대면하기 힘든 ‘나’의 상태를 보여 준다.
- ⑤ ㉕: 세상과의 단절 속에서도 삶의 의욕을 되찾고자 하는 어머니의 재기 의지를 나타낸다.

【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내일 아침 올라가야겠어요.”

점심상을 물러나 앉으면서 나는 마침내 입속에서 별러 오던 소리를 내뱉어 버렸다.

노인과 아내가 동시에 밥숟가락을 멈추며 멀거니 내 얼굴을 건너다본다.

“내일 아침 올라가다니. 이참에도 또 그렇게 쉽게?”

노인은 결국 숟가락을 상 위로 내려놓으며 믿기지 않는다는 듯 되묻고 있었다.

나는 이제 내친걸음이었다. 어차피 일이 그렇게 될 바엔 말이 나온 김에 매듭을 분명히 지어 두지 않으면 안 되었다.

“예, 내일 아침에 올라가겠어요. 방학을 얻어 온 학생 팔자도 아닌데, 남들 일할 때 저라고 이렇게 한 가할 수가 있나요. 급하게 맡아 놓은 일도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그래도 한 며칠 쉬어 가지 않고……. 난 해필 이런 더운 때를 골라 왔길래 이참에는 며칠 좀 쉬어 갈 줄 알았더니…….”

“제가 무슨 더운 때 추운 때를 가려 살 여유나 있습니까?”

“그래도 그 먼길을 이렇게 단걸음에 되돌아가기야 하겠냐. 난 항상 한동자로만 왔다가 선걸음에 새벽 길을 나서곤 하더라마는…… 이번에는 너 혼자도 아니고…… 하룻밤이나 차분히 좀 쉬어 가도록 하거라.”

“오늘 하루는 쉬었지 않아요. 하루를 쉬어도 제 일은 사흘을 버리는걸요. 찾길이 훨씬 나아졌다곤 하지만 여기서 아직도 서울이 천 리 길이라 오는 데 하루 가는 데 하루…….”

“급한 일은 우선 좀 마무리를 지어 놓고 오지 않구선…….”

노인 대신 이번에는 아내 쪽에서 나를 원망스럽게 건너다보았다.

그건 물론 내 주변머리를 닦고 있는 게 아니었다. 내게 것처럼 급한 일이 없다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다. 서울을 떠나올 때 급한 일들은 대충 다 처리해 둔 것을 그녀에겐 내가 미리 말을 해 줬으니까. 그리고 이번엔 좀 휴가분한 기분으로 여름 여행을 겸해 며칠 동안이라도 노인을 찾아보자고 내 편에서 먼저 제의를 했었으니까. 그녀는 나의 참을성 없는 심경의 변화를 나무란 것이었다. 그리고 그 매정스런 결단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었다. 까닭 없는 연민과 애원기 같은 것이 서려 있는 그녀의 눈길이 그것을 더욱 분명히 하고 있었다.

“그래, 일이 그리 바쁘다면 가 봐야 하기는 하겠구나. 바쁜 일을 받아 놓고 온 사람을 붙잡는다고 들을 일이었냐.”

한동안 입을 다물고 앉아 있던 노인이 마침내 체념을 한 듯 다시 입을 열어 왔다.

“항상 그렇게 바쁜 사람인 줄은 안다마는, 에미라고 이렇게 먼 길을 찾아와도 편한 잠자리 하나 못 마련해 주는 내 맘이 아쉬워 그랬던 것 같구나.”

말을 끝내고 무연스런 표정으로 장죽 끝에 풍년초를 꺾꺾 눌러 담기 시작한다.

너무도 간단한 체념이었다. 담배통에 풍년초를 눌러 담고 있는 그 노인의 얼굴에는 아내에게서와 같은 어떤 원망기 같은 것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당신 곁을 조금이라도 떠나고 싶어 하는 그 매정스런 아들에 대한 아쉬움 같은 것도 엿볼 수가 없었다. 성냥불도 불이려 하지 않고 언제까지나 그 풍년초 담배만 꺾꺾 눌러 채우고 앉아 있는 노인의 눈길은 차라리 무표정에 가까운 것이었다.

나는 그 너무도 간단한 노인의 체념에 오히려 불쑥 짜증이 치솟았다.

나는 마침내 자리를 일어섰다. 그리고는 그 노인의 무표정에 밀려나기라도 하듯 방문을 나왔다.

장지문 밖 마당가에 작은 치자나무 한 그루가 한 낮의 땀별을 견디고서 있었다.

(중략)

지붕 개량 사업이 애초의 허물이었다.

“집집마다 모두 도당 아니면 기와를 엮는단다.”

노인은 처음 남의 말을 하듯이 집 이야기를 꺼냈었다. 어제저녁 때 노인과 셋이서 잠자리를 들기 전이었다. 밤이 이슥해서 형수는 뒤늦게 조카들을 데리고 이웃집으로 잠자리를 얻어 나가고, 우리는 노인과 셋이서 그 비좁은 오두막 단칸방에 잠자리를 함께 폈다.

어기영차! 어기영……. 그때 어디선가 밤일을 하는 남정들의 합창 소리가 왈차하게 부풀어 올랐다.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있다가 무슨 소리냐니까 노인이 문득 생각난 듯이 귀땀을 해 왔다.

“동네가 너도나도 집들을 고쳐 짓느라 밤잠들을 안자고 저 야단들이구나.”

농어촌 지붕 개량 사업이라는 것이었다. 통일벼가 보급된 후로는 집집마다 그 초가지붕 개초가 어렵게 되었었다. 초봄부터 시작된 지붕 개량 사업은 그래 저래 제격이랬다. 지붕을 개량하면 정부 보조금 5만 원을 얻는다는 것이었다. 모심기가 시작되기 전 봄철 한때하고 모심기가 끝난 초여름계부터 지금까지 마을 집들 거의가 일을 끝냈었다.

나는 처음 그런 노인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무척 대고 가슴부터 덜렁 내려앉고 있었다. 노인에 대한 빛 생각이 처음으로 머릿속에 떠오른 순간이었다. 이 노인이 쓸데없는 소망을 지니면 어쩌나. 하지만 나는 곧 마음을 가라앉혔다. 무엇보다도 나는 노인에 대해 빛이란 게 없었다. 노인이 그걸 잊었을 리 없었다. 그리고 그런 아들에게 선부른 주문을 내색

할 리 없었다. 전부터도 그 점만은 안심을 할 만한 노인의 성깔이었다. 한데다 노인이 설령 어떤 어울리잖을 소망을 지닌다 해도 이번에는 그 집 꼴이 문제 밖이었다. 도대체가 기와고 도당이고 지붕을 가꿀 만한 집 꼴이 못 되었다. 그래서래 노인도 소망을 지녀 볼 엄두를 못 낸 모양이었다. 이야기하는 말투가 영락없는 남의 일이었다.

하지만 사실은 그게 오해였다. 노인의 속마음은 그게 아니었다.

“관에서 하는 일이라면 이 집에도 몇 번 이야기가 있었겠군요?”

사태를 너무 낙관한 나머지 위로 견해 한마디 실 없는 소리를 내놓은 것이 내 실수였다.

노인은 다시 자리를 일어나 앉았다. 그리고 머리맡에 놓아 둔 장죽 끝에다 풍년초 한 줌을 쏘아 박기 시작했다.

“왜 우리 집이라 말썽이 없었더라냐.”

노인은 여전히 남의 말을 옮기듯 덤덤히 말했다.

“이장이 쫓아와 뜰을 들이고, 면에서 나와서 으름장을 놓고 가고……. 그런 일이 한두 번뿐이었으면 야……. 나중엔 숯제 자기들 쪽에서 사정 조로 나오더라.”

“그래 어머니 뭐라고 우겼어요?”

나는 아직도 노인의 진심을 모르고 있었다.

“우길 것도 뭣도 없는 일 아니겠냐. 지놈들도 눈깔이 제대로 박힌 인간들일 것인데…… 사정을 해 오면 나도 똑같이 사정을 했더니라. 늙은이도 사람인데 나라고 어디 좋은 집으로 손봐 살고 싶은 맘이 없겠소. 맘으로야 천 번 만 번 우리도 남들같이 기와도 입히고 기둥도 갈아 내고 하고는 싶지만 이 집꼴을 좀 들여다보시오들. 이 오막살이 흙집 꼴에다 어디 기와를 얹고 말 것이 있겠소…….”

“그랬더니요?”

(중략)

내가 알고 있는 건 거기까지뿐이었다.

노인이 그 후 어떻게 길을 되돌아갔는지는 나로서도 아직 들은 바가 없었다. 노인을 길가에 혼자 남겨두고 차로 올라선 그 순간부터 나는 차마 그 노인을 생각하기가 싫었고, 노인도 오늘까지 그날의 뒷얘기는 들려준 일이 없었다. 그런데 노인은 웬일로 오늘사 그날의 기억을 끝까지 돌이키고 있었다.

“어떻게 어떻게 장터거리로 들어서서 차부가 저만큼 보일 만한 데까지 가니 그때 마침 차가 미리 불을

켜고 차부를 나오더구나. 급한 김에 내가 손을 휘저어 그 차를 세웠더니, 그래 그 운전사란 사람들은 어찌 그리 길이 급하고 매정하기만 한 사람들이더냐. 차를 미처 세우지도 덜하고 덜크렁덜크렁 눈깜짝할 사이에 저 아그를 훌쩍 실어 담고 가 버리는구나.”

“그래서 어머님은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잠잠히 입을 다문 채 듣고만 있던 아내가 모처럼 한마디 끼어들었다.

나는 갑자기 다시 노인의 이야기가 두려워졌다. 자리를 차고 일어나 다음 이야기를 가로막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이미 그럴 수가 없었다. 사지가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온몸이 마치 물먹은 솜처럼 무겁게 가라앉고 있었다. 몸을 어떻게 움직여 볼 수가 없었다. 형언하기 어려운 어떤 달콤한 슬픔, 달콤한 피곤기 같은 것이 나를 아늑히 감싸 오고 있었다.

“어떻게 하기는야. 녀이 나간 사람마냥 어둠 속에 한참이나 찾길만 바라보고 서 있을 수밖에야……. 그 허망한 마음을 어떻게 다 말할 수가 있을 거냐…….”

노인은 여전히 옛얘기를 하듯 하는 그 차분하고 아득한 음성으로 그날의 기억을 더듬어 나갔다.

“한참 그러고 서 있다 보니 찬바람에 정신이 좀 되 돌아오더구나. 정신이 들어 보니 갈 길이 새삼 허망스럽지 않았겠냐. 지금까지진 그래도 저하고 나하고 둘이서 함께 헤쳐 온 길인데 이참에는 그 길을 늙은 것 혼자서 되돌아서려니……. 거기다 아직도 날은 어둡지야……. 그대로는 암만 해도 길을 되돌아설 수가 없어 차부를 찾아 들어갔더니라. 한 식경이나 차부 안 나무 걸상에 웅크리고 앉아 있으려니 그제사 동녘 하늘이 흰해져 오더구나……. 그래서 또 혼자 서두를 것도 없는 길을 서둘러 나섰는데, 그때 일만은 언제까지도 잊힐 수가 없을 것 같구나.”

“길을 혼자 돌아가시던 그때 일을 말씀이세요?”

“눈길을 혼자 돌아가다 보니 그 길엔 아직도 우리 둘 말고는 아무도 지나간 사람이 없지 않았겠냐. 눈발이 그친 그 신작로 눈 위에 저하고 나하고 둘이 걸어 온 발자국만 나란히 이어져 있구나.”

“그래서 어머님은 그 발자국 때문에 아들 생각이 더 간절하셨겠네요.”

“간절하다뿐이었겠냐. 신작로를 지나고 산길을 들어서도 굽이굽이 돌아온 그 몹쓸 발자국들에 아직도 도란도란 저 아그 목소리나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는 듯만 싶었제. 산비둘기만 푸르르 날아올라도

저 아그 녀이 새가 되어 다시 되돌아오는 듯 놀라지고, 나무들이 눈을 쓰고 서 있는 것만 보아도 뒤에서 금세 저 아그 모습이 뛰어나올 것만 싶었지야. 하다 보니 나는 굽이굽이 그 외지지만 한 산길을 저 아그 발자국만 따라 밟고 왔더니라. 내 자석아, 내 자석아, 너하고 둘이 온 길을 이제는 이 몫쓸 늙은 것 혼자서 너를 보내고 돌아가고 있구나!”

“어머님 그때 우시지 않았어요?”

“울기만 했잖나. 오목오목 디더 논 저 아그 발자국마다 한도 없는 눈물을 뿌리며 돌아왔제. 내 자석아, 내 자석아, 부디 몸이나 성히 지내거라. 부디부디 너라도 좋은 운 타서 복 받고 살거라……. 눈앞이 가리도록 눈물을 떨구면서 눈물로 저 아그 앞길만 밟고 왔제…….”

노인의 이야기가 거진 끝이 나 가고 있는 것 같았다. 아내는 이제 할 말을 잊은 듯 입을 조용히 다물고 있었다.

“그런디 그 서두를 것도 없는 길이라 그렇지럼 시름없이 걸어 온 발걸음이 그래도 어느 참에 동네 뒷산까지 당도해 있었구나. 하지만 나는 그길로는 차마 동네를 바로 들어설 수가 없어 잣등 위에 눈을 쓰고 아직도 한참이나 시간을 기다리고 앉아 있었더니라…….”

“어머님도 이제 돌아가실 거처가 없으셨던 거지요.”

한동안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던 아내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진 듯 갑자기 노인을 채근하고 나섰다.

그 목소리가 울먹임 때문에 떨리고 있었다.

나 역시 더 이상 노인을 참을 수가 없었다. 이제나마 노인을 가로막고 싶었다. 아내의 추궁에 대한 그 노인의 대꾸가 너무나 두려웠다. 노인의 대답을 들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 역시도 불가능한 일이었다.

나는 아직도 눈을 뜰 수가 없었다. 불빛 아래 눈을 뜨고 일어날 수가 없었다. 사지가 마비된 듯 가라앉아 있는 때문만이 아니었다. 졸음기가 아직 아쉬워서도 아니었다. 눈꺼풀 밑으로 뜨겁게 차오르는 것을 아내와 노인 앞에 보일 수가 없었다. 그것이 너무도 부끄러웠기 때문이다. 아내는 이번에도 그러는 나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았다.

“여보, 이젠 좀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서 당신도 말을 좀 해 보세요.”

그녀가 느닷없이 나를 세차게 흔들며 깨웠다. 그녀의 음성은 이제 거의 울부짖음에 가까웠다. 그래도 나는 일어날 수가 없었다. 뜨거운 것을 숨기기 위해 눈꺼풀을 꼭꼭 눌러 참으며 내쳐 잠이 든 척 버틸 수밖에 없었다.

음성이 아직 흐트러지지 않고 있는 건 오히려 노인뿐이었다.

“가만두거라. 아침 길 나서기도 피곤할 것인데 곤하게 자고 있는 사람 밧 하러 그러냐.”

노인은 일단 아내의 행동을 말려 두고 나서 아직도 그 옛얘기를 하는 듯한 아득하고 차분한 음성으로 당신의 남은 이야기를 끝맺어 가고 있었다.

“그런디 이것만은 내가 좀 잘못 안 것 같구나. 그때 내가 뒷산 잣등에서 동네를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던 일 말이다. 그건 내가 갈 데가 없어 그랬던 건 아니란다. 산 사람 목숨인데 설마 그때라고 누구네 문간방 한 칸이라도 산 몸뚱이 깃들일 데 마련이 안 됐잖나. 갈 데가 없어서가 아니라 아침 햇살이 활짝 퍼져 들어 있는데, 눈에 덮인 그 우리 집 지붕 까지도 햇살 때문에 볼 수가 없었구나. 더구나 동네에선 아침 짓는 연기가 한창인데 그렇게 시린 눈을 해 갖고는 그 햇살이 부끄러워 차마 어떻게 동네 골목을 들어설 수가 있더냐. 그놈의 말간 햇살이 부끄러워져서 그럴 엄두가 안 생겨나더구나. 시린 눈이라도 좀 가라앉히자고 그래 그러고 앉아 있었더니라…….”

- 이청준, 「눈길」

5.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어머니의 헌신을 깨닫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나’의 복합적인 심경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② 다른 인물의 과거 이야기를 통해 주인공의 내면 심리가 변화하고 있다.
- ③ 서사적 기능이 부여된 상징적 소재들을 활용하여 작품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형상화한다.
- ④ 대화를 통한 과거의 재구성과 현재 상황이 교차되는 역순행적 구성으로 사건의 내력을 입체적으로 보여 준다.
- ⑤ 분명한 결론은 제시하지 않고 열린 결말 구조를 지녀 독자에게 상상의 여지를 제한하고 있다.

신유형

「눈길」에서는 작품의 서술상 특징과 기호로 각 구절을 지정하고 해당 구절의 의미, 소재의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 외에도 <보기>를 바탕으로 작품을 올바르게 감상한 내용을 찾는 문제, 등장인물의 심리 및 태도를 파악하는 문제 등이 출제됩니다. 작품의 맥락을 파악하여 등장인물의 심리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그날 밤 노인은 옛날과 똑같이 저녁을 지어 내왔고, 그날 밤을 거기서 함께 지냈다. 그리고 이튿날 새벽 일찍 K시로 나를 다시 되돌려 보냈다. 나중에야 안 일이지만 노인은 그렇게 나에게 저녁밥 한 끼를 지어 먹이고 마지막 밤을 지내게 해 주고 싶어, 새 주인의 양해를 얻어 그렇게 혼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했다. 언젠가 내가 다녀갈 때까지는 하룻밤만이라도 내게 옛집의 모습과 옛날 같은 분위기를 맘 편히 눈을 붙이고 가게 해 주고 싶어하였을 터이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문간을 들어설 때부터 썰렁한 집안 분위기가 이사를 나간 빈집이 분명했건만.

한데도 노인은 그때까지 매일같이 그 빈집을 드나들며 먼지를 털고 걸레질을 해 온 것이었다. 그리고 그때 노인은 아직 집을 지켜 온 흔적으로 안방 한쪽에 이불 한 채와 옷궤 하나를 예대로 그냥 남겨 두고 있었다. 이튿날 새벽 K시로 다시 길을 나설 때서야 비로소 집이 팔린 사실을 분명히 해 온 노인의 심정으로는 그날 밤 그 옷궤 한 가지로나마 옛집의 분위기를 되살려 내 괴로운 잠자리를 위로하고 싶었음에 분명한 물건이었다.

그런 내력이 숨겨져 온 옷궤였다. 떠돌이 살림에 다른 가재도구가 없어서도 그랬겠지만, 이 20년 가까이를 노인이 한사코 함께 간직해 온 옷궤였다. 그만큼 또 나를 언제나 불편스럽게 만들어 온 물건이었다. 노인에게 빛이 없음을 몇 번씩 스스로 다짐하고 지내다가도 그 옷궤만 보면 무슨 액면가 없는 빛문서를 만난 듯 기분이 꺼림칙스러워지곤 하던 물건이었다.

(나) 그날 밤—아니 그날 새벽—아내에겐 한 번도

들려준 일이 없는 그날 새벽의 서글픈 동행을, 나 자신도 한사코 기억의 피안으로 사라져 주기를 바라오던 그 새벽의 눈길의 기억을 노인은 이제 받아 낼 길 없는 묵은 빛 문서를 들추듯 허무한 목소리로 되씹고 있었다.

“날은 아직 어둡고 산길은 험하고, 미끄러지고 넘어지면서도 차부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시간을 대어갈 수가 있었구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나의 머릿속에도 마침내 그날의 정경이 손에 닿을 듯 역력히 떠올랐다.

(중략)

나는 갑자기 다시 노인의 이야기가 두려워졌다. 자리를 차고 일어나 다음 이야기를 가로막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이미 그럴 수가 없었다. 사지가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온몸이 마치 물먹은 솜처럼 무겁게 가라앉고 있었다. 몸을 어떻게 움직여 볼 수가 없었다. 형언하기 어려운 어떤 달콤한 슬픔, 달콤한 피곤기 같은 것이 나를 아늑히 감싸 오고 있었다.

(다) “길을 혼자 돌아가시던 그때 일을 말씀이세요?”

“눈길을 혼자 돌아가다 보니 그 길엔 아직도 우리 둘 말고는 아무도 지나간 사람이 없지 않았잖나. 눈발이 그친 그 신작로 눈 위에 저하고 나하고 둘이 걸어 온 발자국만 나란히 이어져 있구나.”

“그래서 어머님은 그 발자국 때문에 아들 생각이 더 간절하셨겠네요.”

“간절하다뿐이었잖나. 신작로를 지나고 산길을 들어서도 굽이굽이 돌아온 그 몹쓸 발자국들에 아직도 도란도란 저 아그 목소리나 따듯한 온기가 남아 있는 듯만 싶었제. 산비둘기만 푸르르 날아올라도 저 아그 넋이 새가 되어 다시 되돌아오는 듯 놀라지고, 나무들이 눈을 쓰고 서 있는 것만 보아도 뒤에서 금세 저 아그 모습이 뛰어나올 것만 싶었지야. 하다 보니 나는 굽이굽이 그 외지지만 한 산길을 저 아그 발자국만 따라 밟고 왔더니라. 내 자석아, 내 자석아, 너하고 둘이 온 길을 이제는 이 몹쓸 늙은 것 혼자서 너를 보내고 돌아가고 있구나!”

“어머님 그때 우시지 않았어요?”

“울기만 했잖나. 오목오목 디더 논 저 아그 발자국마다 한도 없는 눈물을 뿌리며 돌아왔제. 내 자석아, 내 자석아, 부디 몸이나 성히 지내거라. 부디부디 너라도 좋은 운 타서 복 받고 살거라……. 눈앞이 가리

도록 눈물을 떨구면서 눈물로 저 아그 앞길만 밟고 왔제…….”

(라) 나는 아직도 눈을 뜰 수가 없었다. 불빛 아래 눈을 뜨고 일어날 수가 없었다. 사지가 마비된 듯 가라앉아 있는 때문만이 아니었다. 졸음기가 아직 아쉬워서도 아니었다. 눈꺼풀 밑으로 뜨겁게 차오르는 것을 아내와 노인 앞에 보일 수가 없었다. 그것이 너무도 부끄러웠기 때문이다. 아내는 이번에도 그러는 나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았다.

“여보, 이젠 좀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서 당신도 말을 좀 해 보세요.”

그녀가 느닷없이 나를 세차게 흔들며 깨웠다. 그녀의 음성은 이제 거의 울부짖음에 가까웠다. 그래도 나는 일어날 수가 없었다. 뜨거운 것을 숨기기 위해 눈꺼풀을 꼭꼭 눌러 참으며 내쳐 잠이 든 척 버틸 수밖에 없었다.

음성이 아직 흐트러지지 않고 있는 건 오히려 노인뿐이었다.

“가만두거라. 아침 길 나서기도 피곤할 것인데 곤하게 자고 있는 사람 뒷 하러 그러냐.”

노인은 일단 아내의 행동을 말려 두고 나서 아직도 그 옛얘기를 하는 듯한 아득하고 차분한 음성으로 당신의 남은 이야기를 끝맺어 가고 있었다.

“그런디 이것만은 네가 좀 잘못 안 것 같구나. 그때 내가 뒷산 잣등에서 동네를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던 일 말이다. 그건 내가 갈 데가 없어 그랬던 건 아니란다. 산 사람 목숨인데 설마 그때라고 누구네 문간방 한 칸이라도 산 몸뚱이 깃들일 데 마련이 안 됐겠냐. 갈 데가 없어서가 아니라 아침 햇살이 활짝 퍼져 들어 있는데, 눈에 덮인 그 우리 집 지붕 까지도 햇살 때문에 볼 수가 없더구나. 더구나 동네에선 아침 짓는 연기가 한창인데 그렇게 시린 눈을 해 갖고는 그 햇살이 부끄러워 차마 어떻게 동네 골목을 들어설 수가 있더냐. 그놈의 말간 햇살이 부끄러워서 그럴 엄두가 안 생겨나더구나. 시린 눈이라도 좀 가라앉히자고 그래 그러고 앉아 있었더니라…….”

- 이청준, 「눈길」

6. 윗글의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아내는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의 정서를 매개하며 어머니의 입장에서 상황을 이해하고 돕고자 한다.
- ② 어머니는 거처가 처분된 상황에서도 아들을 맞이하기 위해 정성껏 옛집을 관리하며 자식을 향한 지극한 애정을 보여 준다.
- ③ 아내는 감수성이 풍부한 인물로, 남편의 냉담한 태도를 지적하며 그의 각성을 유도한다.
- ④ ‘나’는 아내가 어머니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에 노골적으로 반감을 표출하며, 아내와 대립한다.
- ⑤ ‘나’는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을 비로소 자각하지만, 그로 인해 밀려오는 참담함과 죄책감 때문에 자신의 진심을 선뜻 드러내지 못하고 갈등한다.

【7~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내일 아침 올라가야겠어요.”

점심상을 물러나 앉으면서 나는 마침내 입속에서 별러 오던 소리를 내뱉어 버렸다.

노인과 아내가 동시에 밥숟가락을 멈추며 멀거니 내 얼굴을 건너다본다.

“내일 아침 올라가다니. 이참에도 또 그렇게 쉽게?”

노인은 결국 숟가락을 상 위로 내려놓으며 믿기지 않는다는 듯 되물고 있었다.

나는 이제 내친걸음이었다. 어차피 일이 그렇게 될 바엔 말이 나온 김에 매듭을 분명히 지어 두지 않으면 안 되었다.

“예, 내일 아침에 올라가겠어요. 방학을 얻어 온 학생 팔자도 아닌데, 남들 일할 때 저라고 이렇게 한가할 수가 있나요. 급하게 맡아 놓은 일도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그래도 한 며칠 쉬어 가지 않고……. 난 해필 이런 더운 때를 골라 왔길래 이참에는 며칠 좀 쉬어 갈 줄 알았더니…….”

“제가 무슨 더운 때 추운 때를 가려 살 여유나 있습니까?”

“그래도 그 먼길을 이렇게 단걸음에 되돌아가기가 하겠냐. 넌 항상 한동자로만 왔다가 선걸음에 새벽 길을 나서곤 하더라마는…… 이번에는 너 혼자도 아

니고…… 하룻밤이나 차분히 좀 쉬어 가도록 하거라.”

“오늘 하루는 쉬었지 않아요. 하루를 쉬어도 제 일은 사흘을 버리는걸요. 찾길이 훨씬 나아졌다곤 하지만 여기서 아직도 서울이 천 리 길이라 오는 데 하루 가는 데 하루…….”

“급한 일은 우선 좀 마무리를 지어 놓고 오지 않구선…….”

(나) “내 나이 일흔이 다 됐는데, 이제 또 남은 세상이 있으면 얼마나 길러더냐.”

이가 완전히 삭아 없어져서 음식 섭생이 몹시 불편스러워진 노인을 보고 언젠가 내가 지나가는 말처럼 권해 본 일이 있었다. 싸구려 가지라도 해 끼우는 게 어떻겠느냐는 나의 말 선심에 애초부터 그래 줄 가망이 없어 보여 그랬던지 노인은 단자리에서 사양을 해버리는 것이었다.

“이력저력 지내다 이대로 가면 그만일 육신, 이제와 늘그막에 웬 탄 세상을 보겠다고…….”

한번은 또 치질기가 몹시 심해져서 배변을 힘들어 하시는 걸 보고 수술 같은 걸 권해 본 일도 있었다.

노인은 그때도 역시 비슷한 대답이었다.

“나이를 먹어도 아녀자는 아녀자다. 어떻게 남의 눈에 굶은 데를 보이겠더냐. 그냥저냥 참다 갈란다.”

남은 세상이 얼마 길지 못하리라는 체념 때문에도 그랬겠지만, 그보다 노인은 아무것도 아들에게 주장하거나 돌려받을 것이 없는 당신의 처지를 감득하고 있는 탓에도 그리 된 것이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형의 주벽으로 가계가 파산을 겪은 뒤부터, 그리고 마침내 그 형이 세 조카아이와 아이들의 홀어머니까지 포함한 장남의 모든 책임을 내게 떠맡기고 세상을 떠난 뒤부터 일은 줄곧 그렇게 되어 온 셈이었다.

고등학교와 대학교와 군영 3년을 치러 내는 동안 노인은 내게 아무것도 낳아 기르는 사람의 몫을 못했고, 나는 또 나대로 그 고등학교와 대학과 군영의 의무를 치르고 나와서도 자식 놈의 도리는 엄두를 못 냈다. 노인이 내게 베푼 바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럴 처지가 못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나대로 형이 내게 떠맡기고 간 장남의 책임을 감당하기를 사양치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노인과 나는 결국 그런 식으로 서로 주고받을 것

이 없는 처지였다. 노인은 누구보다 그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대해선 소망도 원망도 있을 수가 없었다.

(다) 노인도 거기서 한동안은 그저 꺼져 가는 장죽 불에만 신경을 쏟고 있는 기색이었다. 하더니 이윽고는 더 이상 소망을 숨기기가 어려운 듯 가는 한숨기를 삼켰다. 그러고는 그 한숨기 끝에 무심결인 듯 덧붙여 왔다.

“이참에 웬만하면 우리도 여기서 방 한 칸쯤이나 더 늘려 내고 지붕도 도당으로 얹어 버리면 싶긴 하더라만…….”

마침내 노인이 당신의 소망을 내비친 것이었다.

“오늘 당할지 낼 당할지 모를 일이긴 하다면, 날짐승만도 못한 목숨이 이리 모질기만 하다 보니 별의 별 생각이 다 드는구나. 저런 옷궤 하나도 간수할 곳이 없어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다 보면 어떤 땐 저러 일을 저질러 버리고 싶은 생각이 꿀떡 갈아지기도 하고…….”

노인은 결국 그런 식으로 당신의 소망을 분명히 해버리고 만 셈이었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그런 소망을 지녔던 것만은 분명히 한 것이다.

나는 이제 할 말이 없었다. 눈을 감은 채 듣고만 있었다. 노인에 대해선 빛이 없음을 골백번 속으로 다짐하고 있었다.

(라) 그런 내력이 숨겨져 온 옷궤였다. 떠돌이 살림에 다른 가재도구가 없어서도 그랬겠지만, 이 20년 가까이 노인이 한사코 함께 간직해 온 옷궤였다. 그만큼 또 나를 언제나 불편스럽게 만들어 온 물건이었다. 노인에게 빛이 없음을 몇 번씩 스스로 다짐하고 지내다가도 그 옷궤만 보면 무슨 액면가 없는 빛 문서를 만난 듯 기분이 꺼림칙스러워지곤 하던 물건이었다.

(중략)

아내의 성화를 견디다 못해 노인은 결국 마지못한 어조로 그날 밤 일을 얼핏 돌이키고 들었다. 어조에는 아직도 그날 밤의 심사가 조금도 실려 있지 않은 채였다.

“그래 저를 나무래서 냉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더니라. 그리고 더운밥 지어 먹어서 그 집에서 하룻밤을 재워 가지고 동도 트기 전에 길을 되돌려 떠나보냈더니라…….”

“그래 그때 어머님 마음이 어떠셨어요?”

“마음이 어찌기야. 팔린 집이나마 거기서 하룻밤 저 아그를 재워 보내고 싶어 싶은 골목 드나들며 마당도 쓸고 걸레질도 훑치며 기다려 온 에미였는데, 더운밥 해 먹이고 하룻밤을 재우고 나니 그만만 해도 한 소원은 우선 풀린 것 같더구나.”

“그래 어머님은 흡족한 기분으로 아들을 떠나보내셨다는 말씀이시군요. 하지만 정말로 그게 그러실 수 있었을까요? 어머님은 정말로 그렇게 흡족한 마음으로 아들을 떠나보내실 수 있으셨을까 말씀이에요. 아들은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길이였다 치더라도 어머님 자신은 그때 변변한 거처 하나 마련해 두시지 못하셨을 처지에 말씀이에요.”

(마) 그날 밤—아니 그날 새벽—아내에겐 한 번도 들려준 일이 없는 그날 새벽의 서글픈 동행을, 나 자신도 한사코 기억의 피안으로 사라져 주기를 바라오던 그 새벽의 눈길의 기억을 노인은 이제 받아 낼 길 없는 묵은 빛 문서를 들추듯 허무한 목소리로 되씹고 있었다.

“날은 아직 어둡고 산길은 험하고, 미끄러지고 넘어지면서도 차부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시간을 대어갈 수가 있었구나…….”

(중략)

나는 차를 타고 떠나갔고, 노인은 거기서 다시 어둠 속의 눈길을 되돌아서야 했다…….

내가 알고 있는 건 거기까지뿐이었다.

노인이 그 후 어떻게 길을 되돌아갔는지는 나로서도 아직 들은 바가 없었다. 노인을 길가에 혼자 남겨두고 차로 올라선 그 순간부터 나는 차마 그 노인을 생각하기가 싫었고, 노인도 오늘까지 그날의 뒷얘기는 들려준 일이 없었다. 그런데 노인은 웬일로 오늘사 그날의 기억을 끝까지 돌이키고 있었다.

(중략)

“눈길을 혼자 돌아가다 보니 그 길엔 아직도 우리들 말고는 아무도 지나간 사람이 없지 않았겠냐. 눈발이 그친 그 신작로 눈 위에 저하고 나하고 둘이 걸어 온 발자국만 나란히 이어져 있구나.”

“그래서 어머님은 그 발자국 때문에 아들 생각이 더 간절하셨겠네요.”

“간절하다뿐이었겠냐. 신작로를 지나고 산길을 들어서도 굽이굽이 돌아온 그 몸쓸 발자국들에 아직도 도란도란 저 아그 목소리나 따듯한 온기가 남아

있는 듯만 싶었제. 산비둘기만 푸르르 날아올라도 저 아그 녀이 새가 되어 다시 되돌아오는 듯 놀라지고, 나무들이 눈을 쓰고 서 있는 것만 보아도 뒤에서 금세 저 아그 모습이 뛰어나올 것만 싶었지야. 하다 보니 나는 굽이굽이 그 외지지만 한 산길을 저 아그 발자국만 따라 밟고 왔더니라. 내 자석아, 내 자석아, 너하고 둘이 온 길을 이제는 이 몸쓸 늙은 것 혼자서 너를 보내고 돌아가고 있구나!”

“어머님 그때 우시지 않았어요?”

“울기만 했겠냐. 오목오목 디더 논 저 아그 발자국마다 한도 없는 눈물을 뿌리며 돌아왔제. 내 자석아, 내 자석아, 부디 몸이나 성히 지내거라. 부디부디 너라도 좋은 운 타서 복 받고 살거라……. 눈앞이 가리도록 눈물을 떨구면서 눈물로 저 아그 앞길만 밟고 왔제…….”

노인의 이야기가 거진 끝이 나 가고 있는 것 같았다. 아내는 이제 할 말을 잊은 듯 입을 조용히 다물고 있었다.

(중략)

나는 아직도 눈을 뜰 수가 없었다. 불빛 아래 눈을 뜨고 일어날 수가 없었다. 사지가 마비된 듯 가라앉아 있는 때문만이 아니었다. 졸음기가 아직 아쉬워서도 아니었다. 눈꺼풀 밑으로 뜨겁게 차오르는 것을 아내와 노인 앞에 보일 수가 없었다. 그것이 너무도 부끄러웠기 때문이다. 아내는 이번에도 그러는 나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았다.

“여보, 이젠 좀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서 당신도 말을 좀 해 보세요.”

그녀가 느닷없이 나를 세차게 흔들며 깨웠다. 그녀의 음성은 이제 거의 울부짖음에 가까웠다. 그래도 나는 일어날 수가 없었다. 뜨거운 것을 숨기기 위해 눈꺼풀을 꼭꼭 눌러 참으며 내치 잠이 든 척 버틸 수밖에 없었다.

음성이 아직 흐트러지지 않고 있는 건 오히려 노인뿐이었다.

“가만두거라. 아침 길 나서기도 피곤할 것인데 곤하게 자고 있는 사람 뭣 하러 그러냐.”

노인은 일단 아내의 행동을 말려 두고 나서 아직도 그 옛얘기를 하는 듯한 아득하고 차분한 음성으로 당신의 남은 이야기를 끝맺어 가고 있었다.

“그런디 이것만은 네가 좀 잘못 안 것 같구나. 그때 내가 뒷산 잣등에서 동네를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던 일 말이다. 그건 내가 갈 데가 없어 그랬

던 건 아니란다. 산 사람 목숨인데 설마 그때라고 누구네 문간방 한 칸이라도 산 몸뚱이 깃들일 데 마련이 안 됐겠냐. 갈 데가 없어서가 아니라 아침 햇살이 활짝 퍼져 들어 있는데, 눈에 덮인 그 우리 집 지붕까지도 햇살 때문에 볼 수가 없더구나. 더구나 동네에선 아침 짓는 연기가 한창인데 그렇게 시린 눈을 해 갖고는 그 햇살이 부끄러워 차마 어떻게 동네 골목을 들어설 수가 있더냐. 그놈의 말간 햇살이 부끄러워서 그럴 엄두가 안 생겨나더구나. 시린 눈이라도 좀 가라앉히자고 그래 그러고 앉아 있었더니라…….”

- 이청준, 「눈길」

7.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자식과 조금이라도 더 머물고 싶어 하는 노인의 소망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냉소적이고 거리감을 두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 ② (나): ‘나’가 어머니에 대해 정서적 부채 의식이 없다고 주장하게 된 논리적 근거를 서술자가 요약적으로 제시하는 부분이다.
- ③ (다): 평생 아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던 노인이 조심스럽게 집 수리에 대한 소망을 내비치자, ‘나’는 이를 부담스러워하며 방어적인 태도를 취한다.
- ④ (라): ‘나’에게 ‘옷궤’는 가문이 번창했던 시절의 영광을 상징하는 매개체이며, ‘나’는 이 물건을 대할 때마다 과거의 안락함과 그리움을 회상하며 위안을 얻는다.
- ⑤ (마): ‘불빛’은 진실을 마주한 ‘나’의 수치심과 가책을, ‘햇살’은 자식과 집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한 처지에서 노인이 느꼈던 슬픔과 회한을 상징한다.

8. <보기>의 관점이 드러나는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학생들은 소설을 접착하고 수용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작품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작품의 의미를 자기화하여 자기 성찰과 새로운 자아 형성을 위한 것이다. 소설 교육은 문학적 가치보다도 작품의 의미를 내면화하면서 자기 삶을 성찰하는데 그 초점을 둔다. 따라서 소설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비평적 사고를 통하여 소설의 의미를 지식이 아닌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 ① ‘노인’이 새 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예전에 살던 집을 빌려 아들을 재운 이유는 무엇인가?
- ② ‘노인’이 눈길을 혼자 돌아온 이야기를 듣고 난 후 ‘나’의 마음은 어땠는가?
- ③ 작가의 어떠한 경험과 일생이 ‘나’에 투영되었는가?
- ④ 1인칭 주인공 시점을 통해 사건을 전개하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가?
- ⑤ ‘나’처럼 어머니의 헌신을 외면하고 매정하게 행동한 적이 있었는가?

정답 및 해설

1. 정답 ②

- ㄱ. 과거 형의 방탕한 생활과 그로 인한 가계의 몰락 과정을 떠올림으로써 주인공이 어머니에 대해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 ㄴ. 노인이 성냥불도 붙이지 않은 채 담배만 눌러담는 무표정한 행동을 묘사하여 인물의 복합적 감정과 체념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ㄷ. 인물의 성격이 바뀌는 극적인 반전 장치는 사용되지 않았다.
- ㄹ. 시골 고향집이라는 공간 내에서 사건이 전개되고 있으며 사건 전개 속도 또한 빠르지 않다.
- ㅁ. 작품 속 주인공인 '나'가 서술자가 되어 자신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므로 주관적 개입이 배제되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2. 정답 ④

- 본문에서 아내는 '나'의 결정에 대해 은근히 분개하고 있으며 노인의 처지를 가엽게 여기고 있으므로, 방관자적인 자세를 취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① 식사를 멈추고 건너다보는 노인과 아내의 모습은 '나'의 내일 아침 올라가겠다는 말이 그들에게 당혹감을 주었음을 의미한다.
- ② 땡벌 아래의 치자나무는 어머니와의 대화에서 느끼는 답답함과 미안함이 뒤섞인 '나'의 불편한 내면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객관적 상관물이다.
- ③ '나'는 어머니가 자신에게 해준 것이 없다는 논리를 내세워 자신의 무관심을 정당화하고 있으며, 이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수치화된 빛의 관계로 이해하는 태도다.
- ⑤ '나'는 어머니에게 빛진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나'의 매정한 성격을 보여준다.

3. 정답 ③

'몹쓸 발자국'이라는 표현은 자식을 원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식을 떠나보내고 혼자 돌아와야 하는

고독한 신세와 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낸다.

- ① 아들과 함께 차부까지 걸어갔던 길에 남은 발자국이므로 동행의 흔적으로 볼 수 있다.
- ② '그래서 어머니는 그 발자국 때문에 아들 생각이 더 간절하셨겠네요.'라는 아내의 말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다.
- ④ 홀로 돌아오는 눈길에 남겨진 발자국은 아들의 부재를 더욱 강하게 인식하게 하여 어머니의 슬픔을 심화시킨다.
- ⑤ '저 아그 목소리나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는 듯만 싶었제'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정답 ⑤

여기서 어머니는 '햇살'을 부끄러워하는데, 이는 자식과 집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어머니의 부끄러움과 슬픔을 의미한다. 따라서 재기 의지나 희망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① '옷궤'는 팔려 나간 집에서 마지막까지 지켰던 물건으로, '나'에게는 어머니의 희생을 떠올리게 하는 불편한 증거물이다.
- ② '묵은 빛 문서'는 아직 갇지 않은, 갇아야 할 어머니의 사랑이자 '나'의 심리적 부채 의식을 가리킨다. 어머니는 자식에게 베푼 사랑을 보답받으려 하지 않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 ③ '산비둘기만 푸르르 날아올라도 저 아그 녀이 새가 되어 다시 되돌아오는 듯 놀라지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④ '불빛'은 '나'에게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게 하며 '나'의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드러낸다.

5. 정답 ⑤

이 글은 결말을 분명하게 제시하지 않으며, 이는 독자에게 상상의 여지를 제공한다.

- ① '달콤한 슬픔'이나 '달콤한 피곤기'와 같은 모순적 표현을 사용하여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나'의 심리를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② 어머니가 아내에게 들려주는 과거의 눈길 이야기를 통해 '나'는 어머니와의 관계를 정당화하기 위해 내세웠던 빛이 없다는 논리가 허구였음을 깨닫고 심리적 변화를 겪는다.
- ③ '눈길', '발자국', 등은 어머니의 고귀한 사랑과 자식을 향한 헌신을 상징하며 어머니의 무한한 사

량에 대한 깨달음과 인간적 화해라는 작품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④ 현재의 사건 중간에 과거의 사건이 삽입되어 진행되는 역순행적 구성을 보이고 있다.

6. **정답** ④

'나'는 아내가 노인의 이야기를 이끌어 내고 자신을 흔들어 깨우는 상황을 두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는 하지만, 이를 겉으로 드러내어 아내와 직접적으로 싸우거나 대립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의 부끄러움과 눈물을 감추기 위해 끝까지 잠든 척한다.

① 아내는 '나'가 외면해 왔던 어머니의 과거를 노인의 입을 통해 듣게 함으로써, '나'와 어머니 사이의 정서적 거리감을 좁히는 역할을 한다.

② 집이 이미 남의 손에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옛집의 온기를 느끼게 해 주려 했던 어머니의 행동은 승고한 모성애를 상징한다.

③ 아내는 노인의 눈길 이야기를 들으며 울부짖음에 가까운 음성을 낼 정도로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남편에게 일어나 말해 보라고 하며 그의 변화를 촉구한다.

⑤ '나'는 어머니의 사랑이 계산할 수 없는 빗임을 깨닫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지만, 그동안 자신이 지켜 온 냉소적인 방어 기제와 부끄러움 때문에 쉽게 일어나지 못하고 머뭇거린다.

7. **정답** ④

'옷궤'는 과거 가세가 기울어 집이 팔리던 날의 비극과 어머니의 눈물겨운 헌신이 담긴 소재다. '나'에게 이 물건은 위안을 주는 소재가 아니라, 외면하고 싶었던 어머니의 사랑을 상징하여 볼 때마다 마음을 꺼림칙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소재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나'는 급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상경하려 하며 어머니의 배려를 외면하는 냉정한 면모를 보인다.

② 형의 방탕함으로 인한 가계 파산과 장남의 책임을 떠맡게 된 과거사를 통해 '나'가 왜 어머니와 주고받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는지 설명하고 있다.

③ 노인이 지붕 개량과 방 증축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자, '나'는 속으로 빗이 없다는 것을 되뇌며 심

리적 불편함을 드러낸다.

⑤ 방 안의 '불빛'은 '나'에게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게 하며 '나'의 부끄러움을 유발하며, '햇살'은 자식과 집을 지키지 못했다는 노인의 부끄러움과 슬픔을 유발한다.

8. **정답** ⑤

<보기>는 독자 맥락에 관한 설명이다. ⑤ 또한 소설 속 '나'의 행동에 비추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질문으로 독자 맥락에 따른 감상이다.

①, ② 작품의 내용에 초점을 맞춘 내재적 요인에 따른 감상이다.

③ 작가 맥락에 따른 감상이다.

④ 작품의 형식적 특징과 서술 기법에 초점을 맞춘 내재적 요인에 따른 감상이다.